

키다리샘 배치... 백신접종 출석인정... 과밀학급 해소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3주년
2학기 전면 등교 학교 운영 대책
초등생 집중지도 프로그램 운영
지역학습도움센터 11개로 확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여름방학기간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집중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담교사를 550명 배치하고 학생용 학습교재와 교구, 간식 등을 제공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사에서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학력 제고 방안 및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 운영 대책 등 각종 교육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학생 6명 소그룹으로 통합지원 '키다리샘' 운영**

기초학력 저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키다리샘' 등 정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키다리샘이란 단위 학교 교사가 기초 학력 함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충 지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제2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는 교과 담당 선생님이 키다리샘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해 예산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키다리샘 550명을 선발한다. 키다리샘 한 명당 6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학생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키다리샘이 학생 기초학력 보정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학생용 학습

교재, 교구, 간식 구매 등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학교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립초등학교 293개교는 방학중 교내에서 기초학력 집중교실을 운영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이 정규 교육 시간에 개별 학생에 대한 상태를 이해하더라도 전체 학생 수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개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게 키다리샘이 방과 후나 방학에

보충 지도를 해서 학력격차를 없애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학습도움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학습·심리·정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학습도움센터는 전면 확대한다. 현재 서울 내 3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11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백신 접종 학교별 재량휴업 가능... 출석 인정**

고3 수험생이 백신을 접종한 뒤 1~2일간은 출석으로 인정하고, 3일이 지나도 몸의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학생만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한 출석 및 휴가로 인정해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고교 교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한다.

교육청 강연홍 교육정책국장은 "이상 반응이 있는 때를 대비해 1~2일간 출석을 인정하며, 3일 이상 지속하면의 진단서를 첨부해 질병 사유로 출석인정을 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직원은 접종 당일 공가 처리하고,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병가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재량휴업도 허용한다. 강 국장은 "백신 접종 당일 전체 휴업을 하진 않지만 단축수업 등 학교장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접종 후 4일 내에는 재량휴업이 가능하며 탄력적 학사운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도 내놴다. 단계적으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거나 임시 교사인 모듈러 교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급식 시간 방역을 위해서는 방역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은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려는 중이지만 교육시설과 교원 정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면서 "2학기부터 특별교실로 전환하는 등 학급을 증설하거나 임시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전문대교협, 사회공헌활동 지원 인증서 수여

교수·인플루언서·기업 대표 등 발굴
지자체-전문대-산업체 간 상생발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교수, 인플루언서 등을 발굴해 전문대학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 전문가 재능나눔'의 인증 수여식을 5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문대학 재능나눔'은 사회에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해 지역사회 내 활동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전문대학, 산업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문가 재능나눔 인증 수여식'에는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능나눔 공적이 있는 ▲강희갑 벨라비타 대표(문화예술 부문) ▲정욱 아티스트(음악·공연) ▲이상욱 대림대학교 교



(왼쪽부터) 승용 리더피아 대표,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안상일 오산대 교수, 강희갑 벨라비타 대표가 5일 '2021 전문가 재능나눔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대교협

수(문예) ▲안상일 오산대학교 교수(디자인) ▲유승용 리더피아 대표(언론·홍보)가 선정돼 재능나눔 인증서를 수여 받고 이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 재능나눔'으로 지금까지 총 15명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현진 기자

숙명여대,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시행

비대면 실시간 화상 면접

숙명여자대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의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해 8월 3일 비대면 실시간 화상으로 전국의 수험생 160명 내외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면접 신청은 6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다.

교육부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의면접은 숙명여대의 학생부종합전형 중 '숙명인재II(면접형)전형'과 '소프트웨어융합인재전형'을 준비하는 전국의 고

등학교 2~3학년 및 졸업생 등 수험생 160여명에게 실제 면접과 동일한 형식과 환경의 모의면접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심사는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개인별로 진행돼 별도의 기출문제가 없기에 이번 모의면접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면접을 대비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의면접 당일에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안내 ▲개별 모의면접(1인당 10분 내외) ▲1대1 피드백(1인당 5분 내외)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캠퍼스타운 꿈 드림데이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세종대 캠퍼스타운 꿈 드림 데이'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상생의 성과를 학교와 지역민에게 공유하고 캠퍼스타운 청년창업 지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덕호 세종대 총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김영욱 캠퍼스타운 센터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와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호서대, 스마트제조혁신 MOU

연구·교육 인력 교류

인천대학교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단은 5일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컨퍼런스룸에서 호서대 디지털팩토리 연구소와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FOMs(스마트공장운영관리) 기반 교육, R&D, 컨설팅 상호협력 ▲인력·기술지원 통한 프로젝트 공동 수행 ▲디지털 제조혁신 교육 인력 교류 ▲산업용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팩토리 최신 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등 활동 통한 협력과 상호 교류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대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단과 호서대 디지털팩토리 연구소가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천대

협약식 후 진행된 특강에서 김수영 디지털팩토리연구소장은 'FOMs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주제로 FOMs 기반 교육 내용과 산업용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팩토리 연구개발 내용을 소개하는 등 정보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이현진 기자



광동제약이 제주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LINC+ 프로그램에 선발된 11명의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동제약, 제주대 LINC+ 사업단과 협력

현장실습 프로그램 진행

광동제약은 제주대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과 함께 7월 한 달간 관심직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올해 상반기 제주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LINC+ 프로그램인 'KDI노베이터'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에게 직무 멘토링과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

련했다. KDI노베이터에 참여한 학생들은 워크숍과 컨설팅·실무 부서 피드백 등을 통해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광동제약이 소매유통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를 활용한 제주지역 공헌활동 등을 기획했다.

LINC+ 프로그램은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